

## ▶ 의생활

## 직장맘을 위한 기능성 임부복 개발 연구

서 추 연\* (동아대학교 의상섬유학부 패션디자인전공 부교수)

박 순 지 (영남대학교 섬유패션학부 의류패션전공 조교수)

김 태 규 (봉제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이 희 정 (봉제기술연구소 연구원)

최근, 임부복은 수입브랜드, 내셔널브랜드,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이 판매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디자인은 옷의 폭을 넓게 하거나, 허리벨트를 고무 밴드로 처리하여 허리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하여 레이스나 리본 등의 장식을 많이 사용하여 직장 여성의 근무복으로 착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근무복으로 적합한 정상형태의 임부복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장 여성의 근무복으로 적합함과 동시에 임산부들의 체형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적인 임부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임산부들의 인체측정을 통하여 임부복 사이즈 스펙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며, 임산부용 드레스폼을 활용하여 임산부 체형을 반영한 기본 원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장맘에 적합한 다양한 임부복 아이템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부복 사이즈 스펙 개발을 위하여 임의표본추출방법으로 부산, 경남 및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직장맘들을 대상으로 인체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인원은 총 201명이며, 측정은 2005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측정항목은 의복설계에 요구되는 기본 항목을 중심으로 총 15개 항목으로 하였으며, 측정시 착의상태는 기본내의(브래지어, 언더웨어 상하의)를 착용하게 하였다. 임부복설계를 위한 인대개발은 일본 New Kypris 사의 임신 6개월용 인대(MAT-6)를 본 연구의 인체측정결과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으며, 임부복개발은 임산부용 인대를 활용하여 설계하였다. 아이템으로는 블라우스 2벌, 팬츠 2벌, 원피스 2벌, 재킷 3벌 등 총 9벌로 하였으며, 소재는 면소재의 일반(woven) 직물과 편성(knit)직물을 사용하였다. 개발 임부복의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외관평가와 기능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win(ver.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차이검증,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인체측정결과, 임신 전후의 체중,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에서 각 개월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었다. 인대는 임신 6개월부터 10개월까지의 인체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으며, 완성된 치수는 임신 8개월을 기준으로 가슴둘레 90cm, 젖가슴둘레 94cm, 가슴아래둘레 86cm, 허리둘레(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돌출부위를 기준으로 함) 97cm, 엉덩이둘레 99cm이다. 일본바디 MAT-9호(임신 9개월용)와 비교하였을 때 가슴둘레는 같으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우리나라의 치수가 각각 2cm, 3cm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블라우스와 원피스는 외관평가에서 일반 직물의 블라우스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기능성평가에서는 니트 직물의 블라우스가 더 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재가 동작편이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어 주는 결과이며, 신축성 소재라 할지라도 외관 실루엣을 고려하여 배부위를 가려주기 위한 적절한 주름처리 등 디자인적 요소가 더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발 팬츠는 뒤희리를 낮추고 허리벨트를 곡선으로 처리한 디자인이 더 기능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재킷은 외관 및 기능성평가에서 테일러드 재킷이 직장맘을 위한 가장 우수한 디자인으로 평가되었다. 이상과 같이, 직장맘을 위한 임부복은 일반 임부복과 달리, 활동성을 고려한 패턴설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축성 소재를 적절히 사용하여 신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산직후에도 수유복으로 활용하는 등 다기능 임부복 개발이 요구된다.